

진심으로 자기 주인공을 믿고 물러서지 마세요

21면에서 계속

아기는데 업보 불을 지르기가 어디 있고 아니, 우리들의 마음이 잘 지르기가 어디 있고, 거기 먼지 앉을 지르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세상이 정맥 동맥이 뚝뚝뚝 뚝뚝뚝 그냥 막 뛰고 돌아가는 판국에 거기 어디에 불을 지르기가 있느냐 이 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는 살아나 관습들이 잠재해 있죠? 또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죠? 또 바깥에서 보고 듣고 일어나죠? 그러니까 일어나는 그 자체는, 그것이 망상이든 업보다 이러질 마시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유인이 될 수 있는 100%다 이라면, 자꾸 생각이 나와야, 요것도 나오고 조것도 나오고, 요것도 보고 조것도 보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나올 수 있어야 목석이 아니지, 그리고 성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지, 아니 요런 생각 조런 생각이 나오지 않는다면 목석이 그 사람입니까? 아, 그것더러 망상이라는 거예요.

바로 자기네들이 자기를 발전시키기 위한 이 자생증생의 업식들이, 업식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생증생들이 자기가 자꾸 생각을 나오게 하는 건데 그 나오게 하는 것을 업보나 무슨 망상이나 이러니까, 퇴박을 하니까 '에이, 망상이라 그러는데 망상 좀 실컷 해 봐라.' 이러고 그냥 망상으로 밀어 가는 거죠. 아, 생각해 보세요! 회사엘 다니면서 극진히 정성스럽게 하는데 '너 요즘도 똑똑! 너는 요즘아, 만날 그런 것도 못해!' 하면서 만날 지경구하고 그렇게 해 보세요. 정말 도둑놈입니다. 네? 그와 같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를 말씀해 드렸는데, 불교라는 이 단어는 포괄적인 불교기 때문에 일체 생명 어느 거 하나 불(佛) 아닌 게 없으며 팔로 전달, 뜻으로 전달, 통신으로 통신, 마음과 마음이 전달, 이렇게 해서 시공이 없이 돌아가는 이 자체가 바로 교(敎)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라는 단어가 자체가 너무나 실감이 나고 실천적이고 실행적이고 또는 진리적이고 아주 타당한 이름이죠, 이름만으로도, 예전에 조선시대 때에 탄압을 받아서 신속으로 들어가서 공부하는 데, 부처님 한 분만 모셔 놓고 하면 그 앞에만 갖다 놓으니까, 여기서 놓고 저기도 놓으라고 방편으로 그렇게 써먹었으면, 지금 이 시대에서는 개선을 해야죠. 그렇지? 잘못된 거는 고쳐가면서 써야죠.

그림을 잘 그리고 싶은데...

문 저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림 그리기는 일이 불교에서 가르치는 참선하는 길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 그림에도 물론 새로운 안목과 새로운 영역이 있으니까 어떻게 나 자신이 나로부터 벗어나서 거기에 도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어렵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근래에 그

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졌는데 사실 저의 그림은 잘 팔리지 않아서 힘이 듭니다.

답 어느 시골에서 떠꺼머리총각이 하나 있었더라. 근데 나무를 태우면 숲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로 땅에다 항상 그림을 그렸더라. 근데 하루는 저녁나절인데 자기가 여자 생각이 나니까 여자를 그려 놓고 그냥 집에 가서 기껏 자고선 저녁나절에 나왔더니 아, 거기 예쁜 여자가 그대로 말을 하더라. 그려 놓은 데서, 그래서 '내가 숲으로 그려 놔는데 이 그림에서 말을 하네!' 하는 동시에 그 여자가 없어지더라. 근데 그 그려 놓은 그 여자가 뭐라고 말을 하나 하면 '그림 그릴 때 살아나갈 때 말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생각하지 말라.' 하고선 그냥 없어졌거든. 그래서 그것을 믿고 생각을 안 한 겁니다. 인생 살아나가는 것도 생각 안 하고 그저 가다가 보기 좋으면

다. 그러곤 물도 그려 놓고 나무도 그려 놓고 처역 벽에다 걸어 놓고 하는 소리가, 여기서 팔이 저러면 나와서 항상 밥을 해 줄 테니 비밀로만 하라고, 내가 밥을 봤다든가 팔이 이렇게 잡혀 준다든가 이런 것을 비밀로 하라고 이렇게 그 그림장이가 일러 주고는 갔거든요. 근데 저녁부터 그 팔이 거기서 나와 가지고선 고깃국도 끓여 주고 뭐 밥도 해주고 다 하고 그냥 또 새벽녘이면 거기로 싹 들어가면 고만인 겁니다.

그림 그 그림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기에 그럴까요? 바로 그것이 무심과 유심이 틀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무심이라면 유심이 유심이라면 무심이나 무심도 아니요 유심도 아닌 그 누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유심도 아니고 무심도 아닌 그 마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림 하나를 그려다 할지라도 산 그림이요, 글자 하나를 쓴다 하더라도 산 글이요, 말 한마디를 한다 하더라도 산 법이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 오늘부터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손이 그리는 게 아니라 바로 진자 참나 손이 내 손을 이용해서 그리라는 것을 꼭 믿으세요. 그렇게 자기 주인공을 꼭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꼭 거기서 살 길이 나오요.

부처님은

높이 계신 것도 아니고

낮게 계신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계신 데

반드시 계십니다!

내 안의 능력과 업에 대해

문 불교에서는 내 안의 불성이 우주 전체의 근원과 틀이 아니기에 내 한생각에 업장을 소멸하고 벗어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왜 업을 강조하고 심지어는 영가 천도 내지는 해년마다 조상천도 의식이 많은 건지요. 일체유심조라는 말과 상충이 되는 것 같아서 질문을 올립니다.

답 혼동할 거 없어요.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산하도 그리고 그냥 그림을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리고 다니면서 어느 산중에 들어서니까 노인네 한 분이 밥을 먹고 혼자 두 다리를 쪽 뻗고 울거든요. 아, 시골 초막집에서 그렇게 울고 있으니까 자기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나서 그 사람을 끌어다 놓으면서 '아 참, 왜 우시느냐?' 하니까 자기 딸이 이렇게 나 혼자만 남겨 놓고 죽었으니 나는 어떻게 사느냐고 하면서 울더라. 그리고 또 뭐가 있어 살지 않느냐고 그러더라고요. 딸이 바느질품을 팔았는데, 인제는 살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걱정 하나도 하지 마시라고, 따님이 죽지 않았으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고선 그날 저녁에 바로 큰 형집에다가 종이를 붙여 가지고 아주 찢어지지 않게 만들어서 거기가 그림을 그렸습니까. 그 집 딸을요. 아,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팔과 똑같이 그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심안으로서 그 딸을 착 놓고 보니까 아이구, 그 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딸을 그대로 그렸어요. 그래서 큰 배를 하나 그려 가지고 거기 띄어 얹혀 놔던 말입니다. 그러곤 물도 그려 놓고 나무도 그려 놓고 처역 벽에다 걸어 놓고 하는 소리가, 여기서 팔이 저러면 나와서 항상 밥을 해 줄 테니 비밀로만 하라고, 내가 밥을 봤다든가 팔이 이렇게 잡혀 준다든가 이런 것을 비밀로 하라고 이렇게 그 그림장이가 일러 주고는 갔거든요. 근데 저녁부터 그 팔이 거기서 나와 가지고선 고깃국도 끓여 주고 뭐 밥도 해주고 다 하고 그냥 또 새벽녘이면 거기로 싹 들어가면 고만인 겁니다.

지금한 마음으로 했는데 머리가 그렇게 썩 거를 그만 좀 해 낚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그만큼 차렸다든 거를 알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꿈에 '애야, 네가 썩 것만 그렇게 하다 왔으니 지금 너의 할아버지도 모두 계신데 내가 가져갈 것도 없느냐.' 아, 그러거든요. 그리고 꿈을 딱 깬어요. 그래서 날더러 와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건 어떤 꿈일까요?' 그러기에 허, 내가 웃었어요. 세상에 자기 마음먹는 대로 조상도 알게 돼 있고 우주간 법계에서도 알게 돼 있고 보살도 알게 돼 있고 부처님도 알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겁니다. 또 아직 진화해 되지 않은 어떠한 짐승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시각이나 촉각이나 후각을 통해서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쪽에서 그만큼 아는 사람이 이것을 통해 보면 그쪽에서 그때서야 사람의

림 거지 업이 있다 뭐, 이렇게 결려 있지 마시고 생각을, 이 환상전을 훌쩍 뛰어넘고 또는 그러한 기복적인 생각에서 훌쩍 뛰어넘으세요. 과거도 없고 현실도 참나 생활이니까 없고 미래는 안 왔으니까 없고, 아예 없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대로 좋게 생각하라. 좋게 생각하면 그대로예요. 아시겠죠? 쓸 것도 없고 써줄 것도 없는 겁니다. 부처님이 벗겨 주려고 애를 썼지 써줘 주려고 애 쓴 건 아니예요. 그러니 우린 쓰지도 말고 누구 써줘 주지도 말고 그림시다.

저의 전생이 무엇인지요?

문 언제나 대자연의 진리를 체험하신 것을 글과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이렇게 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불발 공부 10여 년 정도 하면서 지금 계곡에 빠진 게 뭐냐 하면 '그럼 내 전생이 과연 뭐냐, 내 전생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실 분은 과연 이 세상에는 없는가.' 하는 생각을 수년 동안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현대불교 신문을 통해서 질문을 올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의 전생이 무엇인지 알려 주실 수는 없지요?

답 지금 전생에 대해서 물어 오셨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전생이 없었다면 지금 현생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전생이 없다면 송장일 것이고 육신이 없다면, 보이지 않으니 무효일 것입니다. 또 생각이 없다면 목적이 없으니 다 그렇기 때문에 전생이 있는데 어떻게 현생이 있었습니까? 바로 곧 전생이 현생입니다. 현생이 전생이고요, 그거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선생님 그대로예요. 우리가 죽을 때 허무하지 않다 하는 것은 웃이 헛였으니 아무 데나 앉아서 그냥 뉘그러고 누고 그랬다고 해서 이 웃이 헛였다고 그러는 데요, 아무 데나 앉아서 뉘 뉘했다고 걱정할 거 없고 그냥 뉘 그러거든요. 그래서 새 웃이는 거보다 한 웃이는 게 아주 좋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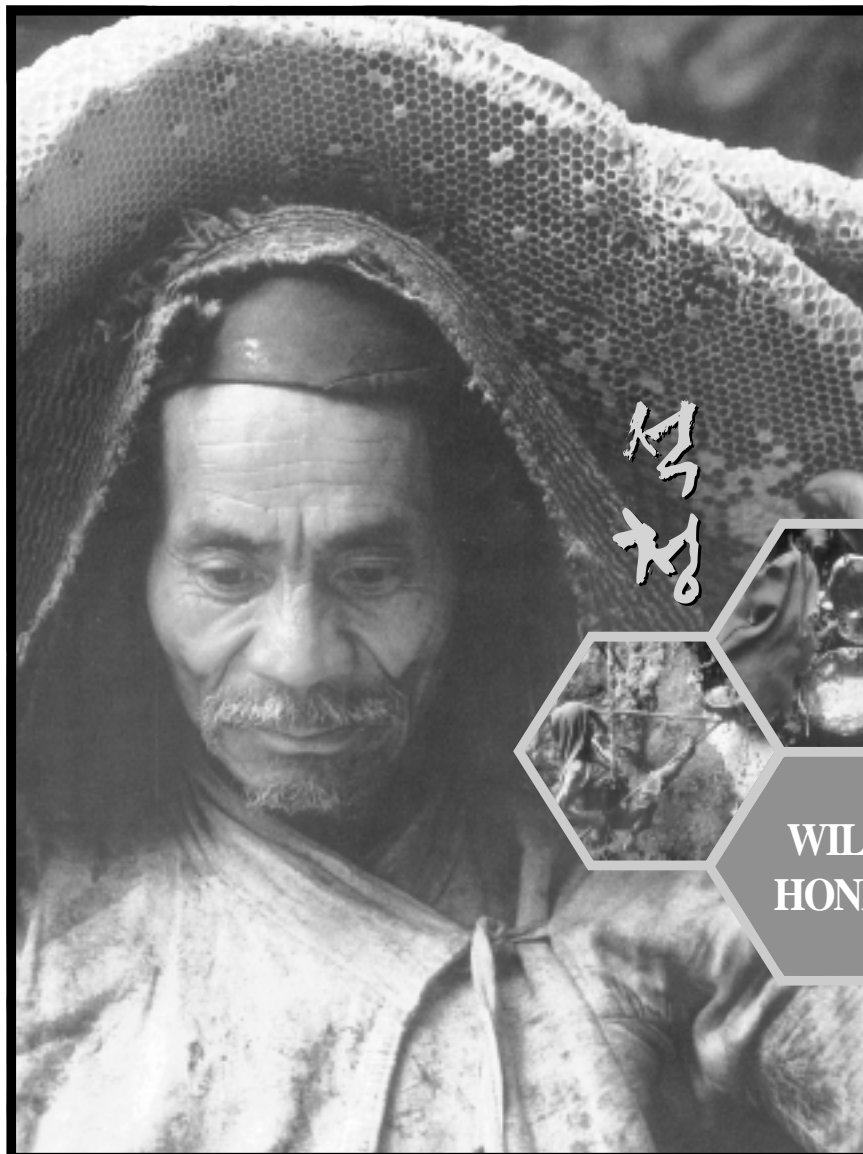
그래서 아무리 노인네가 늙어도 허무하지 않은 겁니다. 이 늙었다는 것이 이게 웃이 헛었다는 얘기인데 이왕 늙어 버렸으니 아무 데나 앉은들 누가 어찌라 이라고고요. 참, 그 마음이 지혜롭고 무늬가 우주 안에 그 마음이 꼭 찻는데 무엇이 부러울 게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마음을 가진 분은 밥 굶을 필요도 없고 웅돈 안 할 사람도 없어요. 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누가 어디서 나와도 나와서 우리가 허무하게 살지 않게 돼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해 보십시오. 그렇게 즐겁습니다. 즐거움 거보다도 허무하거나 그러지 않다고요. 그래서 늙어지면 허무하다고들 그러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요새 허무하다는 소릴 더 잘해요. 노인네들은 외려 탈해요. 그것 참, 어떻게 거꾸로 됐는지 그래요. 그래서 허무하다는 게 왜 허무한가, 그걸 알아보려면 나부터 먼저 알아 이겁니다.

우리 생활속에 부처님 법이 다있는것이지 나를떠나서 무슨 부처님 법이 있겠습니까!

마음을, 문을 열어 주니까 그쪽에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듯이 영령들도 그래서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천도시킬 때에 여러분이 그 상 하나 차렸다고 해서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모든 걸 동글러서, 마음의 원을 그려서 원으로서의 그 원 심력을 생각하면서 동글러 놓는다면 이 원 속에는 다 있지 않습니까? 일체가 다 있는데 아니, 뭐 그리운 게 있었습니까, 거기? 이 세계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있는데 모자랄 게 뭐 있었습니까, 원을 그려 놓으면, 그 원심으로서 제사를 지극하게 드린다면 아마 가계도 도매상이고, 또 어느 호텔이고 음식점이고 뭐, 그런 데로 아니 다니는 데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마음 쓰는 자손들의 영령들 조상들은 그냥 항상 뷔페식 하는 데 가서 잡숫고 상점에 가서 항상 자기 가지고 싶은 대로 갖고 또 상점에 가서 자기 입고 싶은 대로 입을 겁니다. 아마, 벽도 없고 붓장도 없으니까, 물도 없기 때문에 건넌갈 것도 없고 오고 가고도 없이, 시간 공간도 없이,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을 넓게 쓰세요. 무슨 요거 하나 있다, 요거 차렸다 하면 영령들도 조상들도 요거 하나 차린 것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좀 넓게 가지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달



놀라운 NEPAL 히말라야 **석청(꿀)** WILD HONEY 효과

석청은 네팔 히말라야산 2500-4000M의 높은산에서 서식하는 '아피스라보리오사(Apis Laboriosa)벌이 만들어 내는 천연 꿀로서 옛날부터 신비의 물질로 알려져 왔다.

이벌은 덩치가 크고 사나우며 높은 바위에 벌집을 짓고, 벌집의 크기는 자동차 크기만한 것도 있다. 석청을 채취하는 사람을 '바랑게'라 부르며, 밧줄로 사다리를 만들어 높은 바위속으로 올라가 석청을 대나무장대로 채취하며, 밑에서는 연기를 피우며 거둬서 떨어지는 석청을 받는다.

석청은 난치병 치료에 특효하며 히말라야 한의사들은 만병통치약이라 부른다.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며 네팔왕실에서는 국가를 방문하는 귀빈들에게 답례품으로 사용하고 있다. 석청이 알려져 우리나라 KBS에서 2번이나 현지에서 석청 채취장면을 촬영하여 방영한 바 있다. 고질병, 난치병 치료에 효과와 체질 사례들이 알려져, 여성잡지「Queen」에 당뇨치료 효과가 특집으로 소개되어 국내에서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다.

- 굳어있는 세포를 생성시키고, 15일만 복용해도 정력이 왕성해져 '비아그라' 이상의 효과를 나타낸다.
 - 복용후 2~3주가 지나면 오장육부가 좋아져 피부가 윤택해진다.
 - 암, 간염, 위궤양, 위염, 중풍, 당뇨, 고혈압, 아맹증, 아토피성피부, 관절염, 기관지천식, 신경통, 중이염, 만성두통, 변비, 생기증 장애 등 고질병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낸다. (혈액순환장애)
 - 체질을 개선하고, 노화를 방지한다.
- ※이른 부위가 화끈거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물어물하고, 땀이 나고, 설사나 대소변이 대량으로 배출되고, 의식이 몽롱해지고, 눈물이 나기도하는 증세들은 사람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체질이 변하고 있고 치유되고 있다는 증거로 생각하면 된다.

KOREA.NEPAL EXCHANGE CULTURE ASSOCIATION
한국네팔 문화교류협회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8동 159-48 TEL : 02)2692-5363
 울산사무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호리 690-1 TEL : 052)264-0126, 0577 M.P : 010-5559-5570 / 010-7159-4759 E-mail : JUNGRAN1227@hanmail.net

正品供給

- 가 격 : 600g(15일분) 30만원 / 1kg(1달분) 50만원
 ※현재 백화점 쇼핑물에서 1kg(1달분)을 10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 문 의 : 010-6232-6295 / 010-5559-5570 054-751-9755
- 온라인 : 신협 10115-13-032450 최정란 / 경남은행 540-21-0500183 최정란 (입금후 2일내 배송)